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음 5월 12일) 제231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해법은?

원 협약서 제4조·5조에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협의할 것을 명시... 전주시장 발표에 앞서 롯데쇼핑과 협의 진행

전주시는 지난 4월 17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숲과 마이스(MICE)산업 부지로 조성한다는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발표 근거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 제4조(협약문서)와 제5조(해석)를 제시했다.  
'제4조(협약문서)' 단서에는 "단, 본 협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전주시)과 '을'(롯데쇼핑)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해석)'에서는 "본 협약서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나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무효소송은 협약서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다. 협약서 제4조와 5조에서는 "변경이 있을 때는 시의회의 승인(제6조 사업의 개요)"을 거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주시의회 승인 없이는 전주시와 롯데쇼핑은 관련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에 전주시나 롯데쇼핑은 소

송을 진행할 수 없다.  
전주시는 지난 2012년 민선5기 당시 롯데쇼핑이 전주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신축해 주는 조건으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약 12만평 중 약 2만평을 롯데쇼핑에 양여(讓與)하기로 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롯데쇼핑과 협의된 조건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지어주기로 하고 대신 롯데쇼핑이 백화점을 이전할 수

있도록 당초 2만평보다 1/3 축소된 7천평 정도를 롯데쇼핑에 50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다만 호텔은 20년간 롯데쇼핑이 운영한 후에 전주시에 돌려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2012년 당시보다 전주시민을 위해 더 나은 조건으로 롯데쇼핑과의 수정된 협약이 진행중"이라며, "당초 약 2만평을 양도하기로 했던 부지보다 훨씬 적은 7000평을 임대하기로 해 소유권도 지켰고 경기장 대신 컨벤션센터를 지어주는 것으로 전주시민을 위해 더 이득"이라



전주종합경기장 전경

고 강조했다.  
롯데쇼핑 홍보 3팀 고은성 팀장은 "롯데와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 협의를 바탕으로 전주시에서 개발 관련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그는 "롯데쇼핑과 전주시는 2012년 협약서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나 다만, 협약내용에 중요부분이 바뀌어 재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내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 전북도, 어르신 인권보호·학대예방 추진

올해 전문가 사례판정위 개최·학대예방 라디오 등 추진  
전주·완주지역 경로당에 인권지킴이단 파견·지원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 날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노인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과 함께 학대 노인의 상담과 치료를 위해 10억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등 3개소를 운영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에 힘쓰고 있다.  
전북의 노인인구는 36만명 이상으로 도민인구의 19.8%로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있으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수 만큼이나 노인학대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한해 전북에서는 가정과 시설에서 총 233건의 노인학대사례가 발생하였다. 놀랍게도 주요 학대행위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들이 38%, 배우자가 33%를 차지하고

있고 학대유형은 정서 42%, 신체 34%, 방임 11%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피해 노인은 누구에게 말을 못하고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며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마음인자라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더 문제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에는 어르신 학대예방 및 보호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노인인권보호와 학대예방 사업을 적극추진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가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개최, 협력기관 통합 사례회의, 노인학대예방 라디오, 버스 내부 광고 등으로 상담사업과 홍보사업을 더욱 폭넓게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특수사업으로 전주, 완주 지역 경로당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하여 인권보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 피해 어르신 보호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19년부터 노인복지법(제6조의 3) 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 신설로 도내 1137개소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국 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과 간담회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2만4900명에 대하여 의무화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오는 15일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인식개선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을 전개 한다.  
이번 캠페인은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노인 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

을 때 1577-1389로 신고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에 따라 전문상담이나 쉼터연계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에서도 전주와 군산에 각각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거점지역별로 2개소를 설치하여 노인 학대 신고 전화 화운으로 학대노인의 상담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학대노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치료, 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노인 상담과 사례관리, 피해노인 일시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형보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령화 시대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시스템 구축으로 어르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식개선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 만성 A-2BL 공공임대주택 실시설계 적격자에 '태영건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830세대 규모의 전주 만성지구 A-2BL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주)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 만성지구 A-2BL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는 대지면적 4만2,877㎡에 지하 1층~지상 20층, 전용면적 59㎡형 830세대를 건립하는 공사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20일이다.  
공사에서는 입찰에 대해 가중치기준 방식(기술제안점수 60%, 가격점수 40%)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28일 입찰공고했으며, 지난 1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결과 (주)태영건설 컨소시엄, (주)삼호 컨소시엄 2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경쟁해 왔다.  
공사에서는 전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점수(60%)와 가격점수(40%)를 합산한 결과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주)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다.  
실시설계 적격자는 향후 120일간 실시설계를 하게 되며, 실시설계가 적합관정을 받게 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다.  
/김영태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